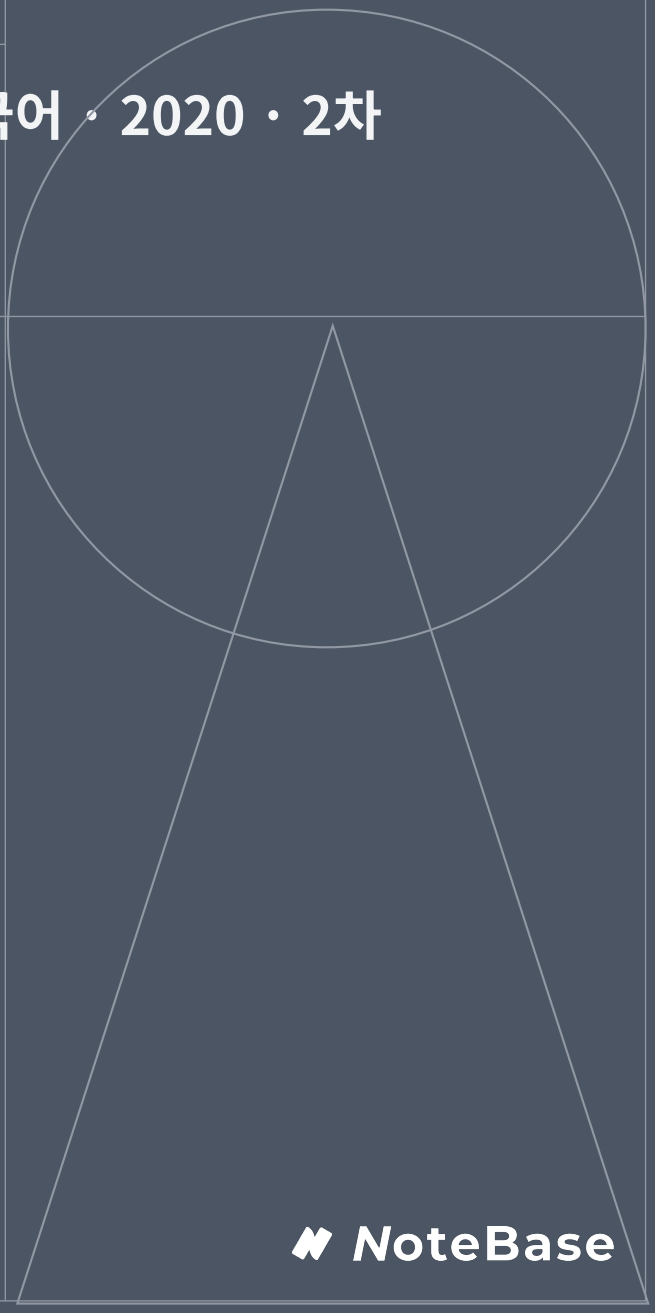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공채(순경) · 국어 · 2020 · 2차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공채(순경) · 국어 · 2020 · 2차

공무원/경찰/공채(순경) · 국어 · 2020 · 2차

문 1. 단어의 발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옻’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 현상이 일어나 [옫]으로 발음된다.

② ‘닫는다’는 동화 현상인 유음화가 일어나 [단는다]로 발음된다.

③ ‘닭’, ‘넋’은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 각각 [닥], [넉]으로 발음된다.

④ ‘쌓지’, ‘먹히다’는 축약 현상이 일어나 각각 [싸치], [머키다]로 발음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음절의 끝소리 규칙, 자음군 단순화, 비음화, 거센소리되기(축약)를 실제 발음과 정확히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음절 끝의 자음이 대표음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ㅇ 가운데 하나로 발음되는 현상이다. 자음군 단순화는 음절 끝의 겹받침에서 한 자음이 탈락하고 하나만 발음되는 현상이다. 비음화는 비음이 아닌 받침이 비음 ㄴ이나 ㅁ의 영향을 받아 비음으로 바뀌는 동화 현상이다. 거센소리되기는 ㅎ과 ㄱ·ㄷ·ㅈ 등이 만나 ㅋ·ㅌ·ㅊ 등의 한 거센소리로 줄어드는 축약 현상이다. 유음화는 ㄴ과 ㄹ이 이어질 때 ㄴ이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바뀌는 현상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옻’의 받침 ㅅ은 음절 끝에서 대표음 ㄷ으로 바뀌므로 [옫]으로 발음된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해당한다.
② X — 틀린 표현은 ‘유음화’이다. ‘닫는다’에서는 받침 ㄷ이 뒤의 비음 ㄴ의 영향을 받아 ㄴ으로 바뀌므로 [단는다]로 발음된다. 올바르게는 비음화가 일어난다고 해야 한다.
③ O — ‘닭’의 겹받침 ㄺ에서는 ㄹ이 탈락하여 [닥]으로, ‘넋’의 겹받침 ㄳ에서는 ㅅ이 탈락하여 [넉]으로 발음된다. 두 단어 모두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다.
④ O — ‘쌓지’에서는 받침 ㅎ과 ㅈ이 합쳐져 ㅊ으로, ‘먹히다’에서는 받침 ㄱ과 ㅎ이 합쳐져 ㅋ으로 발음된다. 따라서 각각 [싸치], [머키다]가 되며 축약 현상에 해당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의 [단는다]라는 발음 자체는 맞지만 현상 이름을 '유음화'라고 한 부분이 함정이다. ㄷ이 뒤의 ㄴ을 닮아 비음 ㄴ으로 바뀌었으므로 비음화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발음 결과만 보지 않고 어떤 음운이 무엇으로 바뀌었는지를 확인한다. ㄱ·ㄷ·ㅂ 계열이 ㄴ·ㅁ 앞에서 ㅇ·ㄴ·ㅁ으로 바뀌면 비음화이고, ㄴ과 ㄹ이 만나 ㄹㄹ로 발음되면 유음화이다.

암기 포인트

'닫는다' [단는다]는 ㄷ이 ㄴ으로 바뀌는 비음화이며, 유음화가 아니다.

NoteBase

문 2. 다음 <보기>는 '-더니'에 대한 자료 조사 내용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더니' 「어미」('이다'의 어간,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 '겠' 뒤에 붙어)

(가) 과거의 사태나 행동에 뒤이어 일어난 상황을 이어 주는 ㉡. 주로 앞 절의 내용이 뒤 절의 원인이 된다.
¶ 오랜만에 운동을 했더니 온몸이 쑤신다.
(나) 지금의 사실이 과거의 경험으로 알았던 사실과 다름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 ____㉢____
(다) (구어체로) 해라할 자리에 쓰여, 과거에 경험하여 새로이 알게 된 사실에 대해 묻는 종결 어미. 예스러운 느낌을 준다.
¶ 그 일이 참말이더니? / ____㉣____

① ㉠에 들어갈 말은 '었'이다.
② ㉡에 들어갈 말은 '관형사형 어미'이다.
③ ㉢에는 '전에는 며칠 밤을 새워도 괜찮더니 요즘은 그렇지 못하다.'를 넣을 수 있다.
④ ㉣에는 '어머님께서 진지는 잘 잡수시더니?'를 넣을 수 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어미 '-더니'가 결합하는 형태와 문장 속 기능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특히 연결 어미와 관형사형 어미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핵심 개념

연결 어미는 용언의 어간에 붙어 앞 절과 뒤 절을 이어 주는 어미이다. 관형사형 어미는 용언이 뒤의 체언을 꾸미도록 만드는 어미이다. (가)의 '-더니'는 두 절을 이어 주므로 연결 어미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더니'는 어간이나 선어말 어미 '-으시-', '-었-', '-겠-' 뒤에 붙을 수 있으므로 ㉠에는 '었'이 들어간다.

② X — 틀린 표현은 '관형사형 어미'이다. (가)의 '-더니'는 앞 절의 과거 사태와 그에 뒤이은 상황을 이어 주므로, 올바르게는 '연결 어미'이다.

③ O — '전에는 며칠 밤을 새워도 괜찮더니 요즘은 그렇지 못하다.'는 과거에 경험한 사실과 현재의 사실이 다름을 나타내므로 (나)의 예문으로 알맞다.

④ O — '어머님께서 진지는 잘 잡수시더니?'의 '-더니'는 과거에 경험하여 새로 알게 된 사실을 묻는 종결 어미로 쓰였으므로 (다)의 예문으로 알맞다.

오답 포인트

'-더니'가 뒤의 내용을 이끌어 준다는 점만 보고 '관형사형'으로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가)에서는 체언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두 절을 연결하므로 '연결 어미'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어미 뒤에 체언이 와서 그 체언을 꾸미면 관형사형 어미이고, 앞 절과 뒤 절을 이어 주면 연결 어미이다. 문장 끝에서 물음이나 서술을 완결하면 종결 어미이다.

암기 포인트

절과 절을 잇는 '-더니'는 연결 어미, 문장을 끝맺는 '-더니?'는 종결 어미이다.

NoteBase

문 3. 다음 <보기>의 한글 맞춤법 규정이 적용된 단어가 아닌 것은?

<보기>
제7항 'ㄷ' 소리 나는 받침 중에서 'ㄷ'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은 'ㅅ'으로 적는다.
예 덧저고리 자칫하면 돗자리

① 무릇
② 엇셈
③ 웃어른
④ 훗일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ㄷ' 소리가 나는 받침을 적는 제7항과 합성어에서 덧나는 소리를 표시하는 사이시옷 규정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제7항은 받침이 'ㄷ' 소리로 나지만 'ㄷ'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경우 그 받침을 'ㅅ'으로 적는 규정이다. 반면 사이시옷은 합성어의 두 말 사이에서 된소리나 'ㄴ' 소리 등이 덧나는 현상을 받침 'ㅅ'으로 나타내는 표기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무릇'의 받침은 'ㄷ' 소리로 나지만 'ㄷ'으로 적을 근거가 없어 'ㅅ'으로 적으므로 제7항이 적용된다. '무릇은 제7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틀리며, 올바르게는 '무릇은 제7항이 적용된다'이다.
② X — '엇셈'의 '엇-'도 'ㄷ' 소리가 나는 받침을 'ㅅ'으로 적은 것이므로 제7항이 적용된다. '엇셈은 제7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틀리며, 올바르게는 '엇셈은 제7항이 적용된다'이다.
③ X — '웃어른'의 '웃-'도 'ㄷ' 소리가 나는 받침을 'ㅅ'으로 적은 것이므로 제7항이 적용된다. '웃어른은 제7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틀리며, 올바르게는 '웃어른은 제7항이 적용된다'이다.
④ O — '훗일'의 'ㅅ'은 '후'와 '일'이 결합할 때 덧나는 'ㄴ' 소리를 나타내는 사이시옷이다. 따라서 제7항이 아니라 사이시옷 규정이 적용된다.

오답 포인트

네 단어에 모두 'ㅅ'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규정을 적용하면 틀린다. 특히 '훗일'의 'ㅅ'을 'ㄷ' 소리 받침으로 보면 안 되며, '후+일'의 결합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사이시옷으로 판단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받침 자체가 'ㄷ' 소리로 나는 단어인지, 두 말이 결합하면서 된소리나 'ㄴ' 소리가 덧나 사이시옷을 적은 합성어인지 먼저 구별한다. 전자는 제7항, 후자는 사이시옷 규정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무릇·엇셈·웃어른은 제7항, 훗일은 '후+일'의 사이시옷이다.

NoteBase

문 4. 다음 자료를 토대로 중세 국어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중세 국어의 자료	중세 국어의 특징
됴ᄒᆞᆫ(좋은), 기프니(깊으니), 나랏 말ᄊᆞ미(나라의 말이)	㉠ 기본 형태를 밝혀 적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는 표기가 쓰였다.
수ᄫᅵ 니겨 날로 ᄡᅮ메(쉽게 익혀 날마다 사용함에)	㉡ 명사형 어미 '-음'이 쓰였다.
세존(世尊)ㅅ 말ᄉᆞᆯ 듣ᄌᆞᆸ고 (세존의 말을 듣고)	㉢ 주체높임 선어말 어미 '-ᄌᆞᆸ-'이 쓰였다.
내히 이러 바ᄅᆞ래 가ᄂᆞ니 (내가 일어 바다에 가니)	㉣ 주격 조사 '-히'가 쓰였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중세 국어 자료에 나타난 이어적기, 명사형 어미,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ㅎ 종성 체언을 정확히 분석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이어적기는 받침을 뒤 음절의 첫소리로 이어 적어 실제 발음을 표기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중세 국어의 명사형 어미에는 모음 조화에 따른 '-옴/-움'이 있었으며, '-ᄌᆞᆸ-'은 객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이다. ㅎ 종성 체언은 'ㅎ'을 끝소리로 가진 체언으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하면 그 'ㅎ'이 표면에 드러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기픈니(깊으니)’ 등은 형태소의 기본 형태를 고정하여 밝혀 적기보다 소리 나는 대로 이어 적은 표기이다. 따라서 기본 형태를 밝혀 적지 않고 소리대로 적는 표기가 쓰였다는 설명이 적절하다.
② X — 틀린 표현은 명사형 어미가 ‘-음’이라는 부분이다. ‘ᄡᅳ메’는 ‘ᄡᅳ-+-움+-에’로 분석되므로, 올바르게는 명사형 어미 ‘-움’이 쓰였다고 해야 한다.
③ X — 틀린 표현은 ‘-ᄌᆞᄇᆞ-’을 주체 높임으로 본 부분이다. ‘듣ᄌᆞᄇᆞ고’의 ‘-ᄌᆞᄇᆞ-’은 말하는 주체가 아니라 동작의 객체인 세종을 높이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이다.
④ X — 틀린 표현은 주격 조사를 ‘-히’라고 한 부분이다. ‘내히’는 ㅎ 종성 체언 ‘냏’에 주격 조사 ‘이’가 결합한 형태이므로, 올바르게는 주격 조사 ‘이’가 쓰였다고 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표면에 보이는 음절을 그대로 어미나 조사로 오인하기 쉽다. ‘ᄡᅳ메’의 ‘움’과 ‘내히’의 ‘히’를 형태소 경계에 따라 분석해야 하며, ‘-ᄌᆞᄇᆞ-’의 높임 대상도 주체가 아니라 객체라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중세 국어 형태는 현대어 풀이만 보지 않고 어간·어미·조사로 나누어 판단한다. 받침이 다음 음절로 이어지면 이어적기, ‘-ᄌᆞᄇᆞ-’이 나타나면 객체 높임, ㅎ 종성 체언 뒤의 ‘히’는 체언의 ‘ㅎ’과 조사 ‘이’의 결합으로 분석한다.

암기 포인트

‘기픈니’는 이어적기, ‘ᄡᅳ메’는 ‘-움’, ‘듣ᄌᆞᄇᆞ고’는 객체 높임, ‘내히’의 조사는 ‘이’이다.

NoteBase

문 5. 다음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fighting 화이팅
㉡ coffee shop 커피숖
㉢ chocolate 초콜릳
㉣ Paris 빠리

① ㉠은 외래어 표기법 제1장 제1항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 자모만으로 적는다.”에 따라 ‘파이팅’으로 고쳐야 한다.

② ㉡은 외래어 표기법 제1장 제3항 “받침에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에 따라 ‘커피숍’으로 고쳐야 한다.

③ ㉢은 외래어 표기법 제1장 제3항 “받침에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에 따라 ‘초콜릿’으로 고쳐야 한다.

④ ㉣은 외래어 표기법 제1장 제4항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에 따라 ‘파리’로 고쳐야 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외래어의 올바른 한글 표기뿐 아니라 그 표기를 뒷받침하는 규정까지 정확히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외래어 표기법 제1장 제1항은 외래어를 국어의 현용 24 자모만으로 적는다는 원칙이고, 제3항은 받침에 ‘ㄱ, ㄴ, ㄹ, ㅁ, ㅂ, ㅅ, ㅇ’만 쓴다는 원칙이며, 제4항은 파열음을 원칙적으로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한편 영어의 [f]는 모음 앞에서 ‘ㅍ’으로 적으므로 fighting은 ‘파이팅’으로 적는다.

선지별 해설

① X — ‘화이팅’을 ‘파이팅’으로 고치는 결과는 맞지만, 이를 제1장 제1항의 ‘현용 24 자모’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한 근거가 틀렸다. 올바르게는 영어 표기 세칙에 따라 모음 앞의 [f]를 ‘ㅍ’으로 적으므로 ‘파이팅’이 된다.
② O — ‘커피숖’의 받침 ‘ㅍ’은 외래어 표기에 사용할 수 있는 일곱 받침에 들지 않는다. 받침을 ‘ㅂ’으로 적어 ‘커피숍’으로 고치는 것이 맞다.
③ O — ‘초콜릳’의 받침 ‘ㄷ’은 외래어 표기에 사용할 수 있는 일곱 받침에 들지 않는다. 받침을 ‘ㅅ’으로 적어 ‘초콜릿’으로 고치는 것이 맞다.
④ O — ‘빠리’의 첫소리 ‘ㅃ’은 파열음의 된소리이다. 파열음 표기에 된소리를 쓰지 않는 원칙에 따라 ‘파리’로 고치는 것이 맞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은 고친 표기 자체가 '파이팅'으로 맞기 때문에 적절한 설명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문항은 표기 결과와 인용한 근거가 모두 맞아야 하며, ①은 [f]를 'ㅍ'으로 적는 직접 근거를 제1장 제1항으로 잘못 연결한 선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선지에서 '고친 표기'와 '인용 규정'을 따로 확인한다. 특수 문자 사용 여부는 제1항, 받침의 종류는 제3항, 파열음의 된소리 여부는 제4항으로 판단하고, 특정 외국어 음가의 대응은 해당 언어의 표기 세칙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f]는 모음 앞에서 'ㅍ', 외래어 받침은 'ㄱ·ㄴ·ㄹ·ㅁ·ㅂ·ㅅ·ㅇ', 파열음은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NoteBase

문 6. 다음 <보기>를 참고할 때 밑줄 친 부분이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 채 「의존명사」 '-은/는 채로' 구성으로 쓰여, 이미 있는 상태 그대로 있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
㉡ 체 「의존명사」 '-은/는' 뒤에 쓰여, 그럴듯하게 꾸미는 거짓 태도나 모양.
㉢ 째 「접사」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대로', 또는 '전부'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① 사과를 껍질채로 먹었다.
② 모르는 채를 하며 고개를 돌렸다.
③ 벽에 기대앉은 체로 잠이 들었다.
④ 내가 아무리 말해도 그는 들은 체도 하지 않았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의존 명사 '채'와 '체', 접미사 '째'의 뜻과 쓰임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채'는 이미 있는 상태가 그대로 이어짐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로, 주로 '-은/는 채로'의 형태로 쓴다.
'체'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면서 그럴듯하게 꾸미는 태도나 모양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다.
'째'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대로' 또는 '전부'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선지별 해설

① X — '껍질채로'의 '채'가 틀렸다. 사과의 껍질을 벗기지 않고 그대로 먹었다는 뜻이므로 접미사 '째'를 붙여 '껍질째로'라고 써야 한다.
② X — '모르는 채를 하며'의 '채'가 틀렸다. 실제로는 알면서 모르는 것처럼 꾸미는 태도를 뜻하므로 '모르는 체를 하며'라고 써야 한다.
③ X — '기대앉은 체로'의 '체'가 틀렸다. 벽에 기대앉은 상태가 그대로 이어진다는 뜻이므로 '기대앉은 채로'라고 써야 한다.
④ O — '들은 체도 하지 않았다'는 들은 것처럼 꾸미는 태도조차 보이지 않았다는 뜻이다. 거짓 태도나 모양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 '체'를 적절하게 썼다.

오답 포인트

'채'와 '체'는 발음과 형태가 비슷하지만, '상태의 지속'과 '그럴듯한 꾸밈'으로 뜻이 다르다. 또한 명사 뒤에서 '그대로'라는 뜻을 더할 때는 의존 명사 '채'가 아니라 접미사 '째'를 붙여 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실제 상태가 이어지면 '-은/는 채로', 사실과 달리 꾸미는 태도이면 '-은/는 체', 명사 전체를 그대로 둔다는 뜻이면 붙여 쓰는 '-째'를 적용한다.

암기 포인트

상태는 '채', 꾸밈은 '체', 명사에 붙는 '그대로·전부'는 '째'이다.

NoteBase

문 7. 다음 <보기>의 ㉠~㉣에 대한 수정 방안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간혹 무엇을 해야 ㉠할 지 몰라 난감할 때가 있다. 그럴 ㉡때 마다 뒷산에 오른다. 산에 ㉢오르 내리는 동안 뒤섞여 있는 생각들이 정리되곤 한다. 나에게 뒷산은 듬직한 ㉣형 같다.

① ㉠: '-ㄹ지'는 하나의 어미이기 때문에 '할'과 '지'를 붙여 '할지'로 수정해야 한다.

② ㉡: '-마다'는 조사이기 때문에 '때'와 '마다'를 붙여 '때마다'로 수정해야 한다.

③ ㉢: '오르내리-'는 두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이기 때문에 '오르-'와 '내리-'를 붙여 '오르내리는'으로 수정해야 한다.

④ ㉣: '같다'는 조사이기 때문에 '형'과 '같다'를 붙여 '형같다'로 수정해야 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어미·조사·합성어는 앞말과 붙여 쓰고, 독립된 형용사는 앞말과 띄어 쓰는 원리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어미는 용언의 어간 뒤에 붙여 쓰고, 조사는 체언 뒤에 붙여 쓴다. 두 어근이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가 된 합성어도 붙여 쓴다. 반면 '같다'가 '서로 다르지 않다' 또는 '그런 부류에 속한다'는 뜻의 형용사로 쓰이면 앞말과 띄어 쓴다.

선지별 해설

① O — '무엇을 해야 할지'의 '-ㄹ지'는 추측이나 막연한 의문을 나타내는 어미이므로 어간 '하-'에 붙여 '할지'로 쓴다. 따라서 '할 지'는 '할지'로 고쳐야 한다.
② O — '마다'는 '낱낱이 모두'의 뜻을 더하는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따라서 '때 마다'는 '때마다'로 고쳐야 한다.
③ O — '오르내리다'는 '오르다'와 '내리다'의 어근이 결합해 하나의 단어가 된 합성 동사이므로 붙여 쓴다. 따라서 '오르 내리는'은 '오르내리는'으로 고쳐야 한다.
④ X — 틀린 부분은 '같다'를 조사라고 보고 '형같다'로 붙여 쓴다는 설명이다. 여기서 '같다'는 '형과 같은 존재이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형용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형 같다'로 써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④의 '같다'를 조사로 오인하기 쉽다. '같다'는 활용하는 형용사이므로 이 문장에서는 독립된 단어이며, 이미 제시된 '형 같다'가 올바른 표기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밑줄 친 표현의 문법적 지위를 먼저 판별한다. 어미와 조사는 앞말에 붙이고, 두 어근이 한 단어를 이루면 붙이지만, 활용하는 용언인 '같다'는 앞말과 띄어 쓴다.

암기 포인트

어미·조사·합성어는 붙여 쓰고, 형용사 '같다'는 띄어 쓴다.

NoteBase

문 8. 다음 <보기>의 ㉠~㉣에 대한 높임 표현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영이: 철수야, 선생님께서 내일 오전에 ㉠오시라고 하셔.
철수: 왜? 무슨 일이 있어?
영이: 선생님이 너에게 ㉡물을 일이 있다고 ㉢하셔.
철수: 언제 가면 돼?
영이: 몰라. 선생님께 직접 ㉣물어봐.

① ㉠: 서술어의 주체가 '철수'이므로 '오라고'로 고쳐야 한다.
② ㉡: 서술어의 주체가 '선생님'이므로 '물으실'로 고쳐야 한다.
③ ㉢: 인용 동사 '하다'의 주체가 '철수'이므로 '해'로 고쳐야 한다.
④ ㉣: 서술어의 객체가 '선생님'이므로 '여쭤봐'로 고쳐야 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높임을 나타내는 말이 누구를 높이는지 확인하여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주체 높임은 서술어의 주체를 높이는 표현으로, 주격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시-' 등이 쓰인다. 객체 높임은 서술어의 객체나 부사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높이는 표현으로, '께'와 '여쭙다' 같은 특수 어휘가 쓰인다.
인용문에서는 인용된 말 안의 서술어와 인용 동사의 주체를 각각 따로 확인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 '오시라고'에서 '오다'의 주체는 선생님이 아니라 오라는 말을 들은 철수이다. 철수를 높일 이유가 없으므로 주체 높임의 '-시-'를 빼서 '오라고'로 고치는 설명이 적절하다.
② O — '선생님이 너에게 물을 일이 있다'에서 '묻다'의 주체는 선생님이다. 주체인 선생님을 높여 '물을'을 '물으실'로 고치는 설명이 적절하다.
③ X — ㉢ 인용 동사 '하다'의 주체는 철수가 아니라 앞에 제시된 선생님이다. 틀린 표현은 '주체가 철수이므로 해로 고쳐야 한다'이며, 올바르게는 '주체가 선생님이므로 하셔가 맞다'이다.
④ O — '선생님께 직접 물어봐'에서 묻는 행위의 상대인 선생님은 높여야 할 대상이다. 객체 높임의 특수 어휘 '여쭙다'를 사용하여 '여쭤봐'로 고치는 설명이 적절하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과 ㉢은 모두 '선생님'이 등장하지만 높임의 적용 대상이 다르다. ㉠의 '오다'는 철수의 동작이고, ㉢의 '하다'는 선생님의 동작이라는 점을 놓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높임 표현이 나오면 해당 서술어마다 '누가 하는가'와 '누구에게 하는가'를 따로 찾는다. 행동의 주체를 높이면 '-시-'를 쓰고, 행동이 미치는 상대를 높이면 '께'나 '여쭙다' 같은 객체 높임 표현을 쓴다.

암기 포인트

'누가' 높으면 주체 높임, '누구에게'가 높으면 객체 높임이다. 인용문 안팎의 주체는 따로 판단한다.

NoteBase

문 9. 밑줄 친 부분이 <보기>의 ㉠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생각이나 감정을 완결된 내용으로 표현하는 최소의 언어 형식을 문장이라 한다. 그런데 문장을 구성하는 ㉠필수적 문장 성분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으면 전달하려는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렵다. 이때 필수적 문장 성분을 생략하면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다.

① 형은 아빠와 많이 닮았다.
② 누나는 동생에게 선물을 주었다.
③ 나는 종일 집에서 동생과 놀았다.
④ 그녀는 자신의 행운을 당연하게 여겼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서술어가 문장을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요구하는 문장 성분과, 없어도 문장이 성립하는 부가적 문장 성분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필수적 문장 성분은 서술어의 의미와 자릿수에 따라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성분이다. 특히 겉모양이 부사어인 성분도 서술어가 반드시 요구하면 필수적 부사어가 된다. 반대로 생략해도 문장이 자연스럽고 의미가 완결되면 부가적 성분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닮다'는 닮은 대상을 나타내는 성분을 요구하므로 '아빠와'는 필수적 부사어이다. '형은 많이 닮았다'만으로는 누구를 닮았는지가 빠져 의미가 충분히 완결되지 않는다.
② O — '주다'는 주는 사람, 주는 대상, 받는 대상을 요구하므로 받는 대상을 나타내는 '동생에게'는 필수적 부사어이다.
③ X — '놀다'는 '나는 놀았다'만으로도 문장이 성립하므로 '동생과'는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동생과'를 필수적 문장 성분으로 보는 것이며, 올바르게는 함께 논 대상을 덧붙이는 부가적 부사어이다.
④ O — '여기다'는 무엇을 어떠하다고 판단하는지를 나타내는 성분을 요구한다. 따라서 '자신의 행운을'과 함께 그 판단 내용을 나타내는 '당연하게'가 있어야 '당연하게 여기다'의 의미가 완성되므로 필수적 부사어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조사가 붙은 부사어를 모두 필수 성분으로 보면 ③에 속기 쉽다. ③의 '동생과'는 함께한 대상을 나타내지만 '나는 종일 집에서 놀았다'로 생략해도 문장이 자연스럽다. 반면 ①의 '닮다', ②의 '주다', ④의 '여기다'는 각각 밑줄 친 성분을 서술어의 의미상 요구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밑줄 친 성분을 뺀 문장을 만든 뒤 서술어의 의미가 완결되는지 확인한다. 의미가 불완전하면 필수적 문장 성분이고, 자연스럽게 성립하면 부가적 문장 성분이다.

암기 포인트

'닮다·주다·여기다'의 대상·판단 성분은 필수이고, '놀다'의 동반 대상은 선택적이다.

NoteBase

문 10. 다음 <보기>는 올바르지 않은 문장 유형에 대한 설명이다. ㉠~㉣의 예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올바르지 않은 문장의 유형으로는, ㉠문장 성분끼리 호응하지 않은 경우, 문장의 성분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불필요하게 의미가 중복된 경우, ㉢중의적인 표현이 사용된 경우, ㉣조사나 어미가 의미에 맞게 사용되지 않은 경우 등이 있다.

① ㉠: 그날 밤중에 잠을 깬 사람은 비단 나뿐이었다.
② ㉡: 그것은 오래전에 불리던 노래이다.
③ ㉢: 손님들이 다 오지 않았어.
④ ㉣: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제시된 문장이 문장 성분의 호응 오류, 불필요한 의미 중복, 중의적 표현, 조사 오용을 실제로 보여 주는지 판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호응 오류는 서로 짝을 이루어야 할 문장 성분이 맞지 않는 경우이고, 의미 중복은 같은 뜻을 불필요하게 거듭 표현한 경우이다. 중의적 표현은 한 문장이 둘 이상의 뜻으로 해석되는 경우이며, 조사 오용은 문장 관계에 맞지 않는 조사를 쓴 경우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비단'은 보통 '뿐만 아니라'와 호응하는데 '나뿐이었다'로 끝나므로 문장 성분의 호응이 어긋난 예이다. 자연스럽게 고치면 '그날 밤중에 잠을 깬 사람은 나뿐이었다.'가 된다.
② X — '오래전에'는 노래가 불리던 때를 나타내고 '불리던'은 노래의 상태를 나타내므로 두 표현의 의미가 중복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것은 오래전에 불리던 노래이다.'는 의미 중복의 예가 아니다. 의미 중복의 예가 되려면 '그것은 오래전에 불리던 옛 노래이다.'처럼 '오래전에'와 '옛'을 겹쳐 써야 한다.
③ O — '손님들이 다 오지 않았어.'는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았다'와 '손님 모두가 온 것은 아니다'라는 두 뜻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중의적 표현의 예이다. 뜻을 분명히 하려면 의도에 따라 '손님들이 한 명도 오지 않았어.' 또는 '손님들이 모두 온 것은 아니야.'로 고친다.
④ O — 관용 표현은 '발등에 불이 떨어지다'이므로 조사 '의'를 쓴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는 조사 오용의 예이다. 올바른 문장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의 '오래전에'와 '불리던'이 모두 과거와 관련된다는 이유만으로 의미가 중복된다고 보기 쉽다. 그러나 하나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이고 다른 하나는 '노래'를 꾸미는 관형어이므로 뜻이 겹치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표시의 오류 유형을 먼저 확정한 뒤, 예문에서 그 오류가 실제로 발생하는 지점을 찾는다. 의미 중복은 단순히 관련 있는 말이 함께 쓰였는지가 아니라 같은 의미를 불필요하게 반복했는지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비단-뿐만 아니라'는 호응, '다 오지 않았다'는 중의성, '발등에'는 올바른 조사이다.

NoteBase

문 11. 다음 (가)~(다)의 전개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거실은 초록색 계열의 파스텔 톤으로 정돈했는데 초록색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공격성을 누그러뜨리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침실은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인 연한 보라색으로 꾸몄고 침실 한편에는 라벤더 화분을 놓아두었다.
(나) 색채는 직관적인 의미나 느낌을 전달하는 아주 강렬한 메시지이며 사람의 감정 체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이를 활용해 최근 새로 단장한 친구의 집을 둘러보았다.
(다) 친구의 말에 따르면 보라색이 명상과 자기 성찰을 자극하는 면이 있다고 한다. 공부방은 노란색을 바탕으로 꾸몄는데 노란색은 집중력을 높이고 에너지가 솟아나도록 도와준다고 하여 특별히 선정한 색이라고 한다.

① (가)-(나)-(다)
② (나)-(가)-(다)
③ (가)-(다)-(나)
④ (나)-(다)-(가)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글의 도입, 공간별 설명의 흐름, 앞 문장과 뒤 문장의 지시·반복 관계를 바탕으로 문단의 순서를 정하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1. (나) — 색채가 사람의 감정에 영향을 준다는 일반 원리를 제시하고, 이를 활용한 친구의 집을 둘러보겠다고 글을 시작한다.
2. (가) — 친구의 집 가운데 거실과 침실의 색채 및 배치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3. (다) — (가)의 '연한 보라색' 침실을 '보라색'의 효과로 이어 설명한 뒤, 공부방의 노란색으로 화제를 옮긴다.

왜 이 순서: (나)의 '이를 활용해'가 뒤의 집 꾸미기 사례를 예고하고, (다)의 '보라색' 설명은 (가)에서 먼저 소개한 보라색 침실을 받아야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가)-(나)-(다)는 구체적인 거실·침실 사례를 먼저 말한 뒤 (나)에서 일반 원리와 집 소개를 뒤늦게 제시하므로 도입과 사례의 순서가 뒤바뀐다. 올바르게는 (나)-(가)-(다)이다.
② O — (나)가 색채의 효과와 친구 집 방문을 소개하고, (가)가 거실과 침실의 사례를 설명하며, (다)가 침실의 보라색을 받아 그 효과를 덧붙인 뒤 공부방으로 이어 간다.
③ X — (가)-(다)-(나)는 집 안의 구체적 사례를 모두 제시한 뒤, 그 사례를 예고하는 (나)의 '이를 활용해 … 친구의 집을 둘러보았다'가 마지막에 놓이는 점이 부자연스럽다. 올바르게는 (나)-(가)-(다)이다.
④ X — (나)-(다)-(가)는 (다)의 '보라색'이 무엇에 쓰였는지 제시되기 전에 그 효과부터 설명하고, 공부방 다음에 다시 거실과 침실로 돌아가 공간 설명의 흐름도 끊긴다. 올바르게는 (나)-(가)-(다)이다.

오답 포인트

(나)와 (다)에 모두 색채의 효과가 제시되어 두 문단을 곧바로 잇기 쉽다. 그러나 (나)는 전체 글의 도입이고, (다)의 '보라색'은 (가)의 '침실은 … 연한 보라색으로 꾸몄고'를 받아 구체화하므로 (가)가 둘 사이에 와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단 배열 문제에서는 먼저 전체 화제를 열고 뒤 내용을 예고하는 도입 문단을 찾은 뒤, 반복어·지시어가 가리키는 앞 문장을 연결한다. 이 글에서는 '색채의 효과와 친구의 집 소개 → 거실·침실 사례 → 침실의 보라색 보충과 공부방 사례'의 흐름이 성립한다.

암기 포인트

일반 원리와 대상 소개가 먼저이고, 구체적 공간 사례와 앞말을 받는 보충 설명이 뒤따른다.

NoteBase

문 12. 다음과 같은 글을 읽을 때, 유의할 점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카슨은 1958년, 조류학자이자 친구인 허킨스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는다. 편지는 정부가 모기를 방제하기 위해 숲속에 디디티(DDT)를 살포한 이후 자신이 기르던 많은 새들이 죽었고, 이에 당국에 항의했지만 당국은 디디티가 동물에 무해하다며, 자신의 항의를 묵살했다는 내용이었다. 이를 계기로 카슨은 너무나 손쉽게 널리 사용되는 바로 이 디디티의 문제점에 대해 알리고자 결심한다. 카슨의 "침묵의 봄"은 이와 같은 배경에서 탄생한 책이다.

① 핵심 내용을 확인하며 읽는다.

② 사실과 주장을 주의하며 읽는다.

③ 정서적이거나 공감이 되는 부분을 찾아 읽는다.

④ 자료의 출처가 믿을 만한 것인지를 생각하며 읽는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설명적·정보 전달 성격의 글을 읽을 때 필요한 비판적 읽기 방법과 문학 작품에 주로 적용하는 감상적 읽기 방법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정보를 전달하는 글은 핵심 내용, 사실과 주장, 자료와 출처의 신뢰성을 확인하며 읽는다. 정서와 공감에 초점을 두는 읽기는 인물의 감정이나 정서적 체험이 중요한 문학 작품을 감상할 때 주로 활용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이 글의 핵심은 허킨스의 편지를 계기로 카슨이 디디티의 문제점을 알리려 했고, 그 배경에서 『침묵의 봄』이 탄생했다는 데 있으므로 핵심 내용을 확인하며 읽는 것은 적절하다.
② O — 새들이 죽었다는 내용, 당국이 디디티가 동물에 무해하다고 한 주장 등을 구별하고 그 근거를 살피는 것은 정보 전달 글을 비판적으로 읽는 적절한 방법이다.
③ X — 틀린 부분은 '정서적이거나 공감이 되는 부분을 찾아' 읽는다는 것이다. 이 글은 정서적 감상을 중심으로 하는 문학 작품이 아니라 『침묵의 봄』의 탄생 배경을 설명하는 글이므로, 올바르게는 핵심 정보와 사실·주장 및 그 근거를 확인하며 읽어야 한다.
④ O — 디디티의 유해성을 둘러싼 서로 다른 내용이 제시되므로 자료의 출처가 신뢰할 만한지 점검하는 것은 내용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데 적절하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의 '정서적이거나 공감이 되는 부분'이라는 표현은 모든 글에 두루 적용되는 읽기 방법처럼 보이지만, 이 글의 주된 목적은 정보 전달이다. 글에 새의 죽음처럼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이 있더라도 중심적인 읽기 방법은 정보와 근거를 확인하는 비판적 읽기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글의 주된 목적을 판단한다. 정보 전달·설득 글이면 핵심 내용, 사실과 주장, 근거와 출처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문학 작품이면 정서와 공감, 심미적 체험에 주목한다.

암기 포인트

정보 글은 핵심·근거·출처, 문학 글은 정서·공감이다.

NoteBase

문 13.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懷疑)를 구하지 못하고
내 또한 삶의 애증을 다 짐지지 못하여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낄 때
저 머나먼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나는 가자.

거기는 한 번 뜬 백일이 불사신처럼 작열하고
일체가 모래 속에 사멸한 영겁(永劫)의 허적(虛寂)에
오직 알라의 신만이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열사(熱沙)의 끝.

① 1인칭의 고백적 어조를 사용하고 있다.
② 역설적인 시적 논리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③ 현실에서 삶의 본질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화자가 등장한다.
④ 대조적인 의미의 시어를 반복하여 시적 대상을 형상화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화자의 어조와 내면, 역설적 시상 전개, 시어의 표현 방식을 작품의 구체적인 구절에서 확인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고백적 어조는 화자가 자신의 내면과 체험을 직접 드러내는 말투이다. 역설적 시적 논리는 겉으로 모순되어 보이는 상황을 통해 더 깊은 의미를 드러내는 전개 방식이다. 이 작품의 화자는 현실의 지식과 삶으로도 해결하지 못한 고뇌를 안고, 모든 것이 사멸하는 극한의 사막으로 가서 생명의 본질을 마주하려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나의', '내', '나는 가자'와 같은 1인칭 표현으로 화자가 자신의 회의와 삶의 애증, 결의를 직접 고백한다.
② O — 삶의 고뇌를 해결하기 위해 오히려 모든 것이 사멸하는 혹독한 사막으로 가려는 설정은 극한의 죽음과 허무 속에서 생명의 본질을 찾으려는 역설적 시적 논리를 보여 준다.
③ O — 화자는 지식으로도 '독한 회의'를 해결하지 못하고 '삶의 애증'을 감당하지 못해 '생명이 부대끼는' 괴로움을 겪는다. 이는 현실에서 삶의 본질을 두고 고뇌하는 모습이다.
④ X — 틀린 부분은 '대조적인 의미의 시어를 반복하여'이다. '생명'과 '사멸', '백일'과 '밤'처럼 대조되는 의미 요소는 나타나지만, 그러한 시어를 반복하여 사막을 형상화하지는 않는다. 올바르게는 강렬한 시각적 심상, '병든 나무처럼'·'불사신처럼'과 같은 직유, 모든 것이 사멸한 극한 공간의 설정으로 시적 대상인 사막을 형상화한다고 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④에는 실제 작품에 나타나는 '생명/사멸', '백일/밤'의 대조가 섞여 있어 그럴듯하다. 그러나 선지 전체의 핵심 서술어는 '반복하여'이며, 작품에는 대조적 시어의 반복이 중심 표현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표현법 선지는 작품에 해당 표현의 재료가 있는지만 보지 않고, 선지가 말한 방식까지 실제로 쓰였는지 확인한다. 특히 '반복', '대조', '역설'은 각각 같은 말의 되풀이, 의미의 맞섬, 겉모순을 통한 의미 형성이라는 근거가 구절에 있어야 한다.

암기 포인트

이 작품은 현실의 고뇌에서 사막으로 향하는 1인칭 고백과 역설적 결의가 핵심이며, 대조적 시어의 반복은 핵심 표현 방식이 아니다.

NoteBase

문 14.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전차 안에서
구보는, 우선, 제자리를 찾지 못한다. 하나 남았던 좌석은 그보다 바로 한 걸음 먼저 차에 오른 젊은 여인에게 점령당했다. 구보는, 차장대 가까운 한구석에 가 서서, 자기는 대체 이 동대문행 차를 어디까지 타고 가야 할 것인가를, 대체 어느 곳에 행복은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이제 이 차는 동대문을 돌아 경성 운동장 앞으로 해서……. 구보는, 차장대, 운전대로 향한, 안으로 파아란 융을 받쳐 댄 창을 본다. 전차과에서는 그곳에 뉴스를 게시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요사이 축구도 야구도 하지 않는 모양이었다.
장충단으로, 청량리로, 혹은 성북동으로……. 그러나 요사이 구보는 교외를 즐기지 않는다. 그곳에는, 하여튼 자연이 있었고, 한적(閑寂)이 있었다. 그리고 고독조차 그곳에는, 준비되어 있었다. 요사이 구보는 고독을 두려워한다.
일찍이 그는 고독을 사랑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고독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심경의 바른 표현이 못 될 게다. 그는 결코 고독을 사랑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아니 도리어 그는 그것을 그지없이 무서워하였는지도 모른다.

① 다양한 체험을 통해 인물 간의 극적 갈등이 시작된다.
② 여정을 따라 등장인물의 의식과 내면을 서술하고 있다.
③ 특정 시대의 소재를 등장시켜 시대적 배경을 짐작할 수 있다.
④ 각종 문장부호의 사용을 통해 특정 부분을 주목하게 하고 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인물의 이동 경로를 따라 내면 의식을 드러내는 서술 방식과 시대적 소재, 문장부호의 효과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이 작품은 뚜렷한 사건이나 인물 간 갈등보다 구보의 이동과 생각의 흐름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전차를 타고 경성의 여러 장소를 떠올리는 외적 여정이 행복과 고독을 생각하는 내면의 여정으로 이어진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구보는 전차 안에서 좌석을 얻지 못하지만 젊은 여인과 충돌하거나 다른 인물과 극적 갈등을 시작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인물 간의 극적 갈등이 시작된다'이다. 올바르게는 전차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구보의 생각과 내면 의식이 전개된다고 해야 한다.
② O — 동대문, 경성 운동장, 장충단, 청량리, 성북동으로 이어지는 여정에 따라 구보가 행복의 행방과 고독에 대한 두려움을 생각하는 과정이 서술된다.
③ O — 전차, 경성 운동장, 전차과의 뉴스 게시, 축구와 야구 같은 소재를 통해 근대 도시 경성이라는 시대적 배경을 짐작할 수 있다.
④ O — 쉼표는 '구보는, 우선,'이나 지명 뒤에서 문장의 흐름을 의도적으로 끊어 해당 어구와 인물의 단속적인 생각을 부각한다. 말줄임표는 이동 경로나 생각이 이어지는 느낌을 주어 그 부분에 주목하게 한다.

오답 포인트

①의 '좌석을 빼앗긴 상황'을 곧바로 '인물 간의 극적 갈등'으로 확대 해석하기 쉽다. 그러나 젊은 여인은 갈등 상대가 되지 않으며, 이 장면의 중심은 외부 사건이 아니라 구보의 내면 의식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작품 설명의 적절성을 판단할 때는 선지의 표현이 지문에서 실제로 전개되는지 확인한다. 인물 사이의 대립과 충돌이 없으면 '극적 갈등'으로 보지 않고, 지명과 이동이 생각의 흐름을 이끌면 여정 중심의 내면 서술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구보의 도시 여정은 사건·갈등의 확대가 아니라 내면 의식의 흐름을 보여 주는 장치이다.

NoteBase

문 15.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우라지 뱃사공아 배 좀 건네주게
싸릿골 올동백이 다 떨어진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 주게

떨어진 동박은 낙엽에나 쌓이지
잠시 잠깐 임 그리워서 나는 못 살겠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 주게

① 우리 민족의 삶을 노래한 문학이다.
② 가창 과정에서 특정 후렴구가 발달했다.
③ 일상어를 통해 화자의 심정을 표출하고 있다.
④ 골계미와 같은 판소리의 미학적 요소를 담아내고자 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민요의 형식·표현상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판소리의 미학적 특징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민요는 민중의 생활과 감정을 담아 입에서 입으로 전승된 노래로, 일상적인 언어와 반복되는 후렴이 두드러진다.
판소리는 한 명의 창자가 고수의 북장단에 맞추어 긴 이야기를 소리·아니리·발림으로 엮어 가는 공연 예술이다.
제시문은 정선 아리랑의 사설로, 임을 그리워하는 정서와 반복되는 '아리랑' 후렴이 나타난다.

선지별 해설

① O — 민요는 민중이 생활 속에서 부르며 전승한 노래이므로 우리 민족의 삶과 정서를 담은 문학이라는 설명이 적절하다.
② O —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 주게'가 각 연에서 되풀이된다. 가창과 전승 과정에서 발달한 특정 후렴구가 확인된다.
③ O — '배 좀 건네주게', '나는 못 살겠네'와 같은 일상적인 말로 임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심정을 직접 드러낸다.
④ X — 틀린 표현은 '골계미와 같은 판소리의 미학적 요소를 담아내고자 했다'이다. 제시문은 판소리가 아니라 민요이며, 중심 정서도 우스꽝스러움에서 오는 골계미가 아니라 임에 대한 그리움과 애상이다. 올바르게는 반복되는 후렴과 일상어를 통해 민중의 삶과 임을 그리워하는 정서를 드러낸다고 해야 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④의 '골계미'가 전통 구비 문학 전반에 나타날 수 있다는 점만 보고 적절하다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이 제시문에서 직접 확인되는 것은 '아리랑' 후렴의 반복과 임을 그리워하는 애상적 정서이며, 판소리의 미학을 담으려 했다는 근거는 없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작품의 갈래를 먼저 확인하고, 선지의 특징이 제시문에서 실제로 드러나는지를 표현 근거와 대조한다. 반복되는 후렴과 생활어는 민요의 특징이며, 판소리 고유의 공연 방식이나 미학을 근거 없이 연결한 선지는 배제한다.

암기 포인트

민요는 민중의 삶·일상어·반복 후렴, 이 작품은 '아리랑' 후렴과 임에 대한 그리움이 핵심이다.

NoteBase

문 16.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사또 들어가 단좌하여 좌우를 살펴보니, 당상의 모든 수령 다담을 앞에 놓고 진양조 양양할 제 어사또 상을 보니 어찌 아니 통분하랴. 모 떨어진 개상판에 닥채 저붐, 콩나물, 깍두기, 막걸리 한 사발 놓았구나. 상을 발길로 탁 차 던지며 운봉의 갈비를 직신, "갈비 한 대 먹고지고." "다라도 잡수시오." 하고 운봉이 하는 말이, "이러한 잔치에 풍류로만 놀아서는 맛이 적사오니 차운(次韻) 한 수씩 하여 보면 어떠하오?" "그 말이 옳다." 하니 운봉이 운을 낼 제, 높을 고(高)자, 기름 고(膏)자 두 자를 내어놓고 차례로 운을 달 제, 어사또 하는 말이, "걸인도 어려서 추구권(抽句卷)이나 읽었더니, 좋은 잔치 당하여서 주효를 포식하고 그저 가기 무렴하니 차운 한 수 하사이다."
운봉이 반겨 듣고 필연을 내어 주니 좌중이 다 못하여 글 두 귀를 지었으되, 민정을 생각하고 본관의 정체를 생각하여 지었것다. "금준미주(金樽美酒)는 천인혈(千人血)이요, 옥반가효(玉盤佳肴)는 만성고(萬姓膏)라. 촉루낙시(燭淚落時) 민루낙(民淚落)이요, 가성고처(歌聲高處) 원성고(怨聲高)라."
이 글 뜻은 "㉠, 옥소반의 아름다운 안주는 일만 백성의 기름이라. 촛불 눈물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 ㉡." 이렇듯이 지었으되, 본관은 몰라보고 운봉이 이 글을 보며 내념(內念)에, "아뿔싸, 일이 났다."

① 서술자가 작품에 개입하여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② 당대 사회의 현실 고발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③ 요약적 진술을 통해 사건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④ 언어 유희적 표현을 사용하여 해학성을 드러내고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고전소설의 서술자 개입, 현실 비판, 장면 제시 방식, 언어유희가 제시문에 실제로 나타나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서술자 개입은 서술자가 사건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물이나 상황에 대한 평가·감정을 직접 드러내는 방식이다. 요약적 진술은 긴 시간의 사건을 압축하여 전달하는 방식인데, 이 글은 잔치 장면과 어사의 행동·대화·한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현장감과 긴장감을 만든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어찌 아니 통분하랴', '민정을 생각하고 본관의 정체를 생각하여 지었것다'에는 상황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와 설명이 직접 드러난다.
② O. '금준미주는 천인혈', '옥반가효는 만성고'라는 시구는 수령들의 호화로운 잔치가 백성의 피와 기름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음을 폭로하므로 당대 탐관오리의 수탈과 백성의 고통을 고발한다.
③ X. 틀린 표현은 '요약적 진술을 통해 사건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이다. 실제로는 잔칫상, 어사의 행동과 대화, 차운 과정, 한시의 내용, 운봉의 내면 반응을 장면으로 구체화하여 사건을 압축하기보다 신분이 드러나기 직전의 긴장감을 형성한다.
④ O. 걸인 행색의 어사가 '갈비 한 대 먹고지고'라고 말하는 대목의 중의적 표현과 '높을 고'와 '기름 고'처럼 같은 음을 활용한 한시는 언어유희를 이루며, 탐관오리를 풍자하는 해학성을 드러낸다.

오답 포인트

③에서 사건이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만 보고 '빠르게 진행된다'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이 대목은 여러 사건을 짧게 압축한 것이 아니라 대화, 행동, 시구, 인물의 내면을 차례로 보여 주는 장면 중심 서술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시간의 흐름을 건너뛰며 사건의 결과만 압축하면 요약적 진술이고, 대화·행동·묘사·내면 반응을 직접 펼쳐 보이면 장면 제시이다. 선지의 표현 방식이 맞는지는 반드시 제시문의 구체적 문구와 대응하여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압축은 요약, 대화와 행동의 직접 제시는 장면이다. 이 대목의 한시는 백성 수탈을 고발하고 탐관오리를 풍자한다.

NoteBase

문 17. (㉠)과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사또 들어가 단좌하여 좌우를 살펴보니, 당상의 모든 수령 다담을 앞에 놓고 진양조 양양할 제 어사또 상을 보니 어찌 아니 통분하랴. 모 떨어진 개상판에 닥채 저붐, 콩나물, 깍두기, 막걸리 한 사발 놓았구나. 상을 발길로 탁 차 던지며 운봉의 갈비를 직신, "갈비 한 대 먹고지고." "다라도 잡수시오." 하고 운봉이 하는 말이, "이러한 잔치에 풍류로만 놀아서는 맛이 적사오니 차운(次韻)한 수씩 하여 보면 어떠하오?" "그 말이 옳다." 하니 운봉이 운을 낼 제, 높을 고(高)자, 기름 고(膏)자 두 자를 내어놓고 차례로 운을 달 제, 어사또 하는 말이, "걸인도 어려서 추구권(抽句卷)이나 읽었더니, 좋은 잔치 당하여서 주효를 포식하고 그저 가기 무렴하니 차운 한 수 하사이다."
운봉이 반겨 듣고 필연을 내어 주니 좌중이 다 못하여 글 두 귀를 지었으되, 민정을 생각하고 본관의 정체를 생각하여 지었것다. "금준 미주(金樽美酒)는 천인혈(千人血)이요, 옥반가효(玉盤佳肴)는 만성고(萬姓膏)라. 촉루낙시(燭淚落時) 민루낙(民淚落)이요, 가성고처(歌聲高處) 원성고(怨聲高)라."
이 글 뜻은 "(㉠), 옥소반의 아름다운 안주는 일만 백성의 기름이라. 촛불 눈물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 (㉡)." 이렇듯이 지었으되, 본관은 몰라보고 운봉이 이 글을 보며 내념(內念)에, "아뿔싸, 일이 났다."

① ㉠: 금동이의 아름다운 술은 일만 백성의 피요, ㉡: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았더라.

② ㉠: 금동이의 아름다운 술은 일만 백성의 피요, ㉡: 노랫소리 높은 곳에 탄식소리 높았더라.

③ ㉠: 금동이의 아름다운 술은 일만 백성의 삶이요, ㉡: 노랫소리 높은 곳에 칭찬소리 높았더라.

④ ㉠: 금동이의 아름다운 술은 일만 백성의 희망이요, ㉡: 노랫소리 높은 곳에 찬양소리 높았더라.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한시의 한자어 '천인혈(千人血)'과 '원성(怨聲)'의 뜻을 문맥에 맞게 풀이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천인혈(千人血)'은 '수많은 백성의 피'를, '원성(怨聲)'은 '원망하는 소리'를 뜻한다. 어사또는 수령들의 호화로운 잔치가 백성의 희생과 고통 위에 이루어졌음을 풍자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의 '천인혈'은 '일만 백성의 피', ㉡의 '원성'은 '원망소리'로 풀이되므로 두 곳이 모두 문맥에 맞는다.
② X — ㉡의 '탄식소리'가 틀렸다. '원성(怨聲)'은 슬퍼서 내는 탄식이 아니라 부당한 수탈을 원망하는 소리이므로 '원망소리'가 알맞다.
③ X — ㉠의 '삶'과 ㉡의 '칭찬소리'가 모두 틀렸다. '혈(血)'은 '피', '원성(怨聲)'은 '원망소리'이므로 각각 '일만 백성의 피', '원망소리'로 고쳐야 한다.
④ X — ㉠의 '희망'과 ㉡의 '찬양소리'가 모두 틀렸다. '천인혈'과 '원성'의 뜻에 따라 각각 '일만 백성의 피', '원망소리'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②의 '탄식소리'는 부정적 정서라는 점 때문에 그럴듯하지만, '怨'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원망을 뜻한다. 또한 '血'을 비유적으로 완화하여 '삶'이나 '희망'으로 바꾸면 수령의 가혹한 수탈을 비판하는 원문의 의미가 약해진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괄호 앞의 한문 원문에서 핵심 한자의 기본 뜻을 먼저 대응시킨다. '血=피', '怨=원망'처럼 직접 대응한 뒤, 백성의 고통과 수령의 사치를 대비하는 문맥에 맞는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천인혈은 백성의 피, 원성은 백성의 원망이다.

NoteBase

문 18. 다음 글에서 [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동양의 유토피아는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 ] 유형 유토피아는 중국의 시인 도연명(陶淵明)의 소설체 산문 '도화원기'에 등장한다. 무릉 땅에 사는 어부가 강물을 따라 산으로 들어갔는데 복숭아꽃이 만발한 곳을 지나자 산의 막다른 곳에서 동굴이 나타났다. 동굴을 통과하니 별천지가 전개되고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마을이 나타났다. 어부는 그들로부터 환대를 받았다. 집으로 돌아가야 할 때 그는 나중에 다시 찾아갈 생각으로 산길에 표시를 해 놓았다. 그러나 다시 살펴보니 표식이 모두 없어져 결국 [ ]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① 安分知足
② 簞瓢陋巷
③ 武陵桃源
④ 風月主人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도연명의 「도화원기」에서 유래한 이상향의 명칭과 한자 성어의 뜻을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무릉도원(武陵桃源)은 도연명의 「도화원기」에 나오는, 현실과 떨어져 사람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는 이상향을 뜻한다. 글의 무릉 땅 어부, 복숭아꽃, 동굴 너머의 별천지, 다시 찾을 수 없는 마을이 모두 무릉도원을 가리키는 단서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安分知足(안분지족)은 자기 분수를 지키며 만족할 줄 아는 태도를 뜻한다. 틀린 표현은 '安分知足'이며, 글의 이상향은 '武陵桃源'이다.
② X — 簞瓢陋巷(단표누항)은 변변치 않은 음식과 누추한 거처로 상징되는 청빈한 생활을 뜻한다. 틀린 표현은 '簞瓢陋巷'이며, 도연명의 「도화원기」에 나오는 이상향은 '武陵桃源'이다.
③ O — 武陵桃源(무릉도원)은 무릉의 어부가 복숭아꽃이 핀 길을 따라 들어가 발견한 이상향을 뜻하므로 두 빈칸에 가장 적절하다.
④ X — 風月主人(풍월주인)은 맑은 바람과 밝은 달 같은 자연 풍경을 즐기는 사람을 뜻한다. 틀린 표현은 '風月主人'이며, 글에서 어부가 발견했다가 다시 찾아가지 못한 이상향은 '武陵桃源'이다.

오답 포인트

①·②·④도 자연이나 소박한 삶과 관련된 긍정적 이미지를 지녀 이상향으로 오인하기 쉽다. 그러나 '무릉의 어부', '복숭아꽃', '도화원기'라는 직접 단서는 무릉도원만을 가리킨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고사 성어 문제에서는 글 속 인물·장소·사물의 고유 단서를 먼저 찾는다. 도연명과 「도화원기」, 무릉의 어부, 복숭아꽃이 함께 나오면 무릉도원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도연명·도화원기·무릉의 어부·복숭아꽃은 무릉도원이다.

NoteBase

문 19. 다음 글의 이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과거에는 지식의 양이 한정적이고 그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었으며, 정전을 중시했기 때문에 이것을 반복적으로 낭독하며 의미를 되새기는 독서를 중시했다. 근대 이후 인쇄술의 발달로 책이 대량 생산되고 대중 교육이 실시되어 독서가 보편화되면서, 묵독이 일반화되고 속독과 다독이 강조되었다. 오늘날에는 전자 기기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독서 문화가 더욱 다양해졌다.
과거에는 유교 경전이나 모범적인 글인 정전의 권위를 빌려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관습적 글쓰기가 강조되었다. 근대 이후 전문 작가에 의한 글쓰기가 이루어졌으며, 창의적 글쓰기를 강조하게 되었다. 오늘날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작가와 독자의 소통이 활발해지고, 독자와 작가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집단적 글쓰기 등 새로운 글쓰기 양상이 생겨나게 되었다.

① 시대 변화에 따른 글쓰기 관습의 변화
② 인쇄술의 발달에 따른 독서 문화의 변화
③ 인터넷의 발달에 따른 글쓰기 방식의 변화
④ 과거와 현재의 독서 방식에 따른 독서 가치의 변화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지문에 제시된 시대별 독서 문화와 글쓰기 양상의 변화를 선지의 표현과 정확히 대응시키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독서 문화의 변화는 지식 접근 환경과 매체의 변화에 따라 낭독·묵독·속독·다독 등 독서 방식이 달라지는 현상이다. 글쓰기 양상의 변화는 정전의 권위를 빌린 관습적 글쓰기에서 전문 작가의 창의적 글쓰기를 거쳐 인터넷상의 집단적 글쓰기로 변화하는 현상이다. 지문은 독서의 방식과 문화가 변했다고 설명할 뿐, 독서의 가치 자체가 변했다고 설명하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지문은 과거의 관습적 글쓰기, 근대 이후의 창의적 글쓰기, 오늘날의 집단적 글쓰기를 차례로 제시하므로 시대 변화에 따른 글쓰기 관습의 변화를 설명한다.
② O — 지문은 인쇄술의 발달로 책이 대량 생산되고 독서가 보편화되면서 묵독이 일반화되고 속독과 다독이 강조되었다고 설명한다.
③ O — 지문은 인터넷의 발달로 작가와 독자의 소통이 활발해지고 양자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집단적 글쓰기 등 새로운 방식이 나타났다고 설명한다.
④ X — 틀린 표현은 '독서 가치의 변화'이다. 지문에는 과거와 현재의 독서 방식 및 독서 문화가 달라졌다는 내용은 있지만, 독서의 가치가 변했다는 내용은 없다. 올바르게는 '과거와 현재의 독서 환경과 방식에 따른 독서 문화의 변화'라고 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④는 지문에 나온 '독서 방식의 변화'를 이용하면서 결론만 '독서 가치의 변화'로 바꾼 선지이다. 관련 소재가 지문에 등장하더라도 핵심 서술어와 결론이 지문의 범위를 벗어나면 적절한 설명이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선지의 핵심 주어와 서술어를 지문의 표현에 대응시킨다. 지문이 방식·문화의 변화를 말하는데 선지가 가치·효과·우열의 변화로 확대하면 근거 없는 해석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방식의 변화는 가치의 변화가 아니다. 지문 이해 문제에서는 소재의 일치보다 서술 관계의 일치를 확인한다.

NoteBase

문 20.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차설. 울대 군중에 명령하여 일시에 불을 지르니, 화약 터지는 소리 산천이 무너지는 듯하고, 불이 사면으로 일어나며 화광이 충천하니, 부인이 계화를 명하여 부적을 던지고, 왼손에 홍화선을 들고, 오른손에 백화선을 들고, 오색 실을 매어 화염 중에 던지니, 문득 피화당으로부터 큰바람이 일며 도리어 오랑캐 중으로 불길이 일며 오랑캐 군사가 불 속에 들어 천지를 분변치 못하니 불에 타 죽는 자가 부지기수라. 울대 대경하여 앙천탄식하기를, "기병하여 조선에 왔으나 이곳에 와 여자를 만나 불쌍한 동생을 죽이고 무슨 면목으로 임금과 귀비를 뵈오리오." 하더라.

① 역순행적 구성을 통해 사건 전개에 입체감을 드러낸다.

②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여 인물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③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지니고 있어 영웅소설로 분류되고 있다.

④ 역사적 사실과 반대되는 내용을 통해 현실 극복의 의지를 볼 수 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박씨전」의 서사 전개 방식, 과장 표현, 영웅소설적 성격, 역사적 배경의 변형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박씨전」은 병자호란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박씨 부인의 비범한 능력과 활약을 그린 여성 영웅소설이다. 작품은 현실의 패배를 허구적 승리로 바꾸어 전쟁의 치욕을 극복하려는 당대인의 소망을 드러낸다.

선지별 해설

① X — 제시된 사건은 울대가 불을 지르고, 박씨 부인의 명을 받은 계화가 부적과 부채를 사용하며, 불길이 오랑캐 군사에게 되돌아가는 순서로 전개된다. 과거 사건을 뒤에 제시하는 역순행적 구성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역순행적 구성'이며, 올바르게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순행적 구성'이다.
② O — '산천이 무너지는 듯하고', '화광이 충천하니'와 같은 과장된 표현은 전투의 규모를 부각하며, 불길을 되돌리는 박씨 부인과 계화의 비범한 능력을 강조한다.
③ O — 작품은 박씨 부인이 고난을 겪은 뒤 비범한 능력으로 위기를 해결하고 나라를 구하는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지니므로 영웅소설로 분류된다.
④ O — 실제 병자호란에서 조선이 청에 패배한 역사와 달리, 작품에서는 박씨 부인이 오랑캐를 물리친다. 이러한 허구적 승리에는 현실의 패배와 치욕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은 전투 장면의 변화가 빠르다는 점을 '역순행적 구성'으로 잘못 연결한 선지이다. 사건의 빠른 전개와 시간 순서의 역전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서사 구성은 사건이 제시된 시간 순서를 따라 판단한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장면이 없으면 역순행적 구성으로 보지 않는다. 역사소설에서는 실제 역사와 작품 속 결말을 비교하여 허구적 승리가 현실 보상 심리를 드러내는지도 함께 살핀다.

암기 포인트

「박씨전」은 병자호란의 패배를 여성 영웅의 허구적 승리로 뒤집은 작품이다.

NoteBase